

1월 24일 한국 영사관 앞에서 홍보시위

한국의 노동자 투사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한국의 노동운동가 여덟 명이 5-7 년의 징역형 위기 앞 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노동자 투사 8 인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홍보시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징역형 위기 앞 에 서 있으며, 이번 주 목요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2 월 3 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은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오세철 교수와 다른 회원들(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 대해 징역 5 년에서 7 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계급운동을 해 온 이 활동가들은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948 년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친북" 활동가들에게 사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노련의 활동가 8 인은 남북한 모두의 노동계급 혁명을 주창하는 국제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구체적 사유 없이 오로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실제로는 이들이 2007 년부터 여러 파업과 투쟁에 관여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강력한 억압이 시도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2008 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한국 정부가 (2009 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분쇄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강경하게 우경화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뿌려진 사노련의 유인물은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2008 년 이후 여러 차례 사노련 회원들을 구속하고자 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매번 실패했습니다. 선고는 이번 주 목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노련에 연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wlk@jinbo.net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Party (lrpcofi@earthlink.net)
Insurgent Notes (editors@insurgentnotes.com)

월요일 오후 5:30-7:00 맨해튼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오세요.
460 Park Ave. (between 58th and 59th St.)